

긴급사태 선언 연장(9월 13일~30일)에 따른 시장님 메시지

히라카타시 시장인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발출 중인 긴급사태 선언이 오사카를 포함한 19의 도도부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발령을 받아 오사카부로는 음식점으로의 주류 제공의 자숙이나 단축 영업 이벤트의 개최제한 조치를 부민에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월 10일에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 소관 시설의 오후 8시까지의 개관 시간 단축 그리고 이벤트의 개최 제한과 같은 조치를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 기간과 같은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 “제 5 파”의 폭발적인 감염자의 증가는 감소 경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8월 29일 이래 1일의 신규 감염자가 100 명이 넘는 날이 3 일 있었지만 9월에 들어가면서 감소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 현재는 50 명 전후를 추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사카부의 병상 사용율은 경증·중등증이 약 70%과 여전히 높고 부내의 입원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시립 히라카타병원의 대응할수있는 병상이 거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체제가 예측을 불허한 상황에 변화는 없습니다.

또 요양자가 많은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전회 “제 4 파”의 피크를 웃도는 숫자로 추이하는 중입니다. 감염자의 급증에 따라 요양자의 여러분에게의 연락이나 조사에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의 체제 강화를 서둘렀습니다. 청 내의 응원 체제를 구축하고 직원을 동원하는 것과 동시에 간사이 의과대학이나 세쯔난대학의 협력을 받고 간호학부의 학생에게 요양자에게의 청취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 감염된

쪽이나 가족 여러분께는 걱정 불안을 끼쳐들이고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하는 중이므로 추가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백신 접종은 이미 고령자의 90 퍼센트 접종을 끝냈습니다. 연대별 신규 감염자를 보면 20 대 이하가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부터 백신의 효과는 일정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이 되는 12 세 이상의 모든 여러분이 접종할 수 있게 되어 현시점으로 2 회의 접종을 완료한 쪽은 40%를 넘고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모든 여러분이 11 월까지 접종해 주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절대로 감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증화를 억제하는 효과는 높고 이번 감염 확대로는 중증화에 이르는 비율이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은 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마스크나 소독 소셜 디스토텐스와 같은 대책을 계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계속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감염 확대를 억제해 갑시다.

레이와 3 년 9 월 13 일

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